

# 청정 자연생태도시·명품 세계유산도시 건설 '올인'

## ● 2016 고창군정 결산

2016년 고창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생활복지 실현과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 등 고른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여주기식' 또는 '치적위주'의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찬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갖춘 세계유산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지키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을 높이며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 인프라 구축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각종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올 한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군 건설'을 위해 매진한 군정을 결산해 본다.

### 내년 국가예산 사상 첫 900억 돌파 쾌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등 척척

### 부자 되는 농업, 6차산업 기반 구축 총력 노인·출산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적극

#### △자연생태환경도시 육성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은 가장 큰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용을 통해 소득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곡습지 및 개선지역 복원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생태체험지구조성과 친환경속박체험시설인 에코촌조성사업과 갯벌 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58억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40억원을 투입하여 갯벌생태탐방로와 쉼터 등을 갖추는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운곡습지 주변 마을들이 함께 모여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학생 현장체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한 군 주요 도로변 17Km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빈 공터였던 공간에 삼지공원도 2개소 조성했으며, 853ha의 건강하고 쾌적한 숲을 조성해 더욱 청결하고 정감 넘치는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했다.

#### △아름답고 품격 있는 세계유산도시

올해 세계유산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43억원을 들여 풍물소리테마파크를 조성했으며, 고인돌박물관 일원에 35억원을 들여 죽림선사마을을 조성해 고창고인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운산도립공원에 대형 주차장을 확충하고 탐방로 정비 및 5Km구간을 지중화해 보다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했다.

66억원을 들여 38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보리밭과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거점 조성의 초석을 놓았다.

고창읍성 일원을 2018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유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박우정 군수

## “군민과 더 소통 알찬 군정 최선”



“을 한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녹색 성장 중심 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고창군 건설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군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넘겨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박 군수는 치적을 쌓기 위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군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낮은 곳과 그늘진 곳을 찾으려, 따뜻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군수로 남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과 고창갯벌 생태지구 조성, 운곡습지 생태관광벨트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청정하고 정감있는 환경도시건설 기반을 다졌으며, 무장읍성 관광거점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 다문화가족, 여성 모두를 배려하는 따뜻한 행복도시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미래를 대비하는 폭넓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박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사계절이 즐거운 자연생태관광도시 건설에 힘을 쏟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더욱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외형보다는 내실을 키우는 알찬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현장탐방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고인돌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우정 군수가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모습(왼쪽)과 고창멜론 농가를 찾아 농민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 고창군 대한민국 으뜸 자연생태도시 '우뚛'

## 박우정 군정성과 기자회견 23호 국도 내년 중 완공 세계유산 관광기반다져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군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임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IC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도계-장성 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지난 27일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준원기자jwkim@

# “관광 요충지 도약 기반 다져”

## 고창군 2016 군정설명 기자회견 복지 지원체계 확립 등 성과 공유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사진)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군간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

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 “지방자치 취지 살린 한해”

### 2016년 고창 군정설명

**박우정 군수, 기자회견서  
주민불편 해소 위해 노력  
복지 지원체계 구축 집중  
행복한 사회건설 매진 등  
군정 추진 주요성과 밝혀**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체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를 보듬어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매진했다”

27일 박우정(사진) 고창군수는 2층 상황실에서 2016년 군정설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박 군수는 비교적 솔직한 의견을 털어냈다.

우선 주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토사랑 반입이 확인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취임 당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실책이라면 실책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다 올해 치러진 고창국화축제는 평가가 엇갈린다”며 “일부 군민들은 석정지구에서 대단위로 치러진 축제의 여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



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지금은 형편이 많이 달라져 그 여망을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가장 민감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에 있을 정기인사는 소폭으로 전망된다”면서 “발탁인사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서열을 중시해 인사를 해온 만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발탁인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또 고창-내장IC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고인돌유적지를 중심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1@

# “자연생태도시로 우뚝선 한해”

박우정 고창군수, 군정성과 공유·소통으로 성장동력 발판 마련

올해 하반기 군정 기자회견

공평한 복지지원체계 확립

유통·관광요충지 기반다져

“머물고 싶은 郡 만들 것”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IC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룡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관소리과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

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 세계 최고 자연생태도시 입지 구축

박우정 고창군수, 군정설명 기자회견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군간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확·포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IC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선도로공사(삼인-궁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과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조종욱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2016년 군정설명 기자회견

지난 27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군정설명 기자회견에서 박우정 군수가 올 한 해 성과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동현 기자

## 고창군, 으뜸 자연생태도시 '우뚛'

박 군수, 군정설명 기자회견

주민 복지지원체계 확립 등

올해 성과 공유·소통 가져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 인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튼튼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장 공사(423억 원)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888억 원), 국도22호선 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원), 도계-장성국지도(15호)건설공사(389억 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관소리와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동현 기자



#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추진”

박우정 고창군수, 올해 군정성과 보고회서... 생태도시 입지 다져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

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IC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궁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 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고창농악 자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